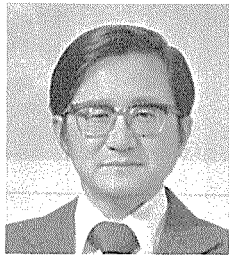


## ● 振興컬럼

# 遠隔複寫機： 팩시밀리



金 貞 欽  
高麗大 教授 / 理博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電話는 상대방이 不在中에는 걸 수가 없다. 또 상대방이 자고 있는 야밤중에도 걸 수가 없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활동하고 있는 낮에 電話를 걸기도 힘이 들 때가 있다. 特히 요즘과 같은 國際化時代에는 말이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고객을 붙잡으려면 밤 11시가 되도록 기다려야 한다. 서울과 뉴욕 사이에는 10時間(또는 마찬가지로 이야기이지만 14時間)의 時差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밤 11시가 되어야 뉴욕은 겨우 아침 9시가 되니 말이다.

그렇다고 그 느린 편지를 보낼 수도 없다. 서울과 뉴욕사이의 편지 往來는 빨라도 10日, 보통은 2週日은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電報를 치기에는 너무도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팩시밀리(Facsimile)였다. 家庭用 팩시밀리(Home fax)를 電話줄에 연결만 시켜둔다면, 언제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不在中이라도, 편지를 보낼 수가 있다. 팩시밀

리란 複写電送裝置를 뜻한다. 그림이건 글이건 종이에 쓴(또는 그림) 內容을 複写機를 쓸 때 모양 팩시밀리機械에 얹어놓고 단추만 누르면 멀리 떨어져 있는(그리고 電話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저쪽 팩시밀리에 단 1分(빠른機種은 단 20秒)만에 電送이 되어 複写되어 나온다. 쉽게 말해 팩시밀리란 電話줄에 의해 연결된 두 台가 한쌍이 되어 있는 遠隔複写機를 뜻한다. 또는 電話줄을 利用한 電子郵便機라 해도 좋다.

##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速達機：PC通信

그러나 그 팩시밀리에는 한가지의 短点이 있다. 팩시밀리를 통해 速達便紙를 보내려면 送信쪽 및 受信쪽의 팩시밀리의機種이 서로 같아야 한다.機種이 같지 않은 팩시밀리 사이는 言語나 習慣이 다른 두 外國人 모양 서로 通信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처음으로 通信코자 하는 낮은 상대방이 어떤機種의 팩시밀리를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낼 수도 없다. 또 설사 알아냈다고 해도 그機種과 自己機種이 같지 않은 한 通信할 수도 없다. 異種間의 팩시밀리를 연결해주는 附加價值通信網(VAN, Value Added Network)은 아직도 發達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VAN이란 쉽게 말해機種이 서로 다른 컴퓨터나 通信機器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通訊裝置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한가지 救援의 길은 있다. 그것은 個人컴퓨터通信(PC通信)이다. PC 通信網의 경우는 全世界的으로 PC-VAN(Personal Computer-Value Added Network)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PC-VAN이란 個人이 갖고 있는 PC(個人컴퓨터)를 PC-VAN을 運營하는 会社의 大型 컴퓨터에 電話로 連結시킴으로써 PC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PC의 종류에 無關하게) 서로 通信을 할 수 있게 만든 通信網을 뜻한다. PC의機種에 관계없이 世界의 어느 누구와도 PC를 통해 通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長点이기도 하다. 그러니 PC-VAN은 비유를 든다면 世界郵便網과도 같다. 이 世界郵便網에 의해

우리는 各國마다 서로 다른 郵便制度를 갖고 있으면서도 世界의 어느 누구와도 文通을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PC-VAN에 加入만 한다면 우리는 世界의 누구(PC를 가진 사람)와도 PC通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이 PC通信이 갖는 電子私書函·電子伝言板·電子會議·電子雜談 등등의 機能에 의해 世界의 누구와도 雜談을 나눌 수 있고, 電子會議에 참가할 수도 있고, 不特定多數人에게 伝言을 보낼 수 있고, 어느 特定人에게 個人컴퓨터의 건반으로 작성한 편지를 보낼 수가 있다.

물론 電子私書函이나 電子伝言板은 상대방이 不在時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또 電子雜談 機能을 이용하면 건반을 두들겨 서로 Real time (実時間, 즉 건반을 두들겨 入力시키자마자 즉석에서란 뜻)으로 通信文을 주고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PC 通信을 쓰면 東洋과 西洋사이 등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通信을 보낼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不在中에도 電子私書函이나 電子伝言板 機能을 써서 時間에 구애됨이 없이 그 時間을 초월해서 通信을 보낼 수가 있다.

### 서로 얼굴도 모르는 PC通信의 親友들

펜팔이나 아마無線 모양 PC通信을 써서 世界의 여러 나라 사람들과 親交를 맺을 수도 있다. 예컨대 PC 伝言板을 써서 ××에 関해 助言을 해달라든가 도와달라 등등의 要請을 하면 그 伝言을 본 사람중 누군가가 반드시 回答을 보내 온다. 그 助言이 事業上의 일일지도 모르고, 단순한 「用語의 意味 問議」일지도 모른다. 또는 PC通信에 처음 加入한 사람인 경우 PC通信의 利用法을 묻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런 PC通信을 통해 國境과 時間을 초월해서 世界 各國에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데 습쳐 한 그룹(Group)

을 형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會社를 만들 수 조차 있다. 지금 美國서는 이런 새로운 모임들이 一大流行이다. 작년말 현재 60万名을 초과한 美國의 PC通信 加入者數는 얼마 안있어 곧 100万名이 돌파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Compuserve란 PC通信會社 加入者數만도 25万, Dow Jones PC通信會社 20万名, Dialog社 6万名 등등이다. 이들은 PC通信의 迅速性·正確性·広域同報機能(伝言板機能에 의해 加入者 全員 또는 特定그룹 全員에게 伝言을 보낼 수가 있다.) 등등을 써서 知識을 늘리고, 事業을 相談하고, 또 PC通信을 이용한 商品販賣, 航空機 座席이나 렌터카(Rent a car) 予約 등도 하는 등 이 文明의 利器를 十分 이용하고 있다.

### 現場에 가지 않고도 自宅에서 記事를 쓸 수 있는 PC通信時代

또 PC通信을 이용해 自宅에 있으면서 記事를 쓰는 新聞記者마저 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PC通信網을 잘만 利用한다면 멋진 記事를 쓸 수가 있다.

예컨대 1984年 7月 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美國民主黨 全党大會에서는 The Source 라는 PC通信會社가 3 사람의 記者를 會場에 보내 取材를 하고 빠른 速度로 全世界에 「Read Only Report(읽기만을 위한 報告書)」를 數百枚나 써보냈다. 그러면 世界에 퍼져있는 數萬名의 The Source 加入者는 미리 約束된 「DEMO 84」(84年 民主黨大會의 略字)란 건반을 누르기만 하면 時時刻刻으로 들어오는 情報를 入手할 수가 있었다.

또 이 3名의 記者 外에 이 會場에는 匿名의 有名 저널리스트들이 追加로 가담하여 特種情報를 PC通信網에 실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PC通信加入者는 집안에 있으면서 時時刻刻으로 들어오는 情報를 읽으므로 會場內의 자세한 情報를 마치 會場에 있거나 한 것처럼 상세히 入手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報告書를 읽

은 加入者들은 電子會議의 단추를 눌러 어느 特種問題에 관한 取材要請·提案·反論·코멘트 등을 그 3人의 取材記者에게 보낼 수가 있고, 이것을 받은 3人의 記者는 이 要請·提案 등을 반영시켜 다음 取材를 하는 등 熱띤 通信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이 PC通信의 電子會議에 참석한 사람은 美國의 3大 TV 네트워크인 「페랄로女史의 副統領 候補 決定」의 報道를 하기 數時間前에 이미 「페랄로 決定」의 報道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 PC通信으로 製作된 映画

또 PC通信網을 十分 이용해서 만든 映画도 있다. 1968年 「西紀2001年, 宇宙大旅行(Space Odyssey 2001)」란 映画로 數百萬·數千萬명의 映画 팬들에게 感銘과 衝擊을 준 이 空前의 大 히트작의 原作小説을 쓴 어더 클라크(Author Clarke)는 1977年 은퇴를 宣言하고 은퇴자들의 樂園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은둔 生活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映画 및 同名의 SF(空想科學小説)에 심취한 독자들과 映画 팬들은 클라크에게 續篇을 써내라고 야단들이었다.

다시는 小説을 쓰지 않고 폭 쉬겠다는 클라크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實은 PC 通信이었다고 한다. 小説을 쓰기 위해, 그리고 그 小説의 映画化를 위해 美國에 旅行갈 필요도 없고, 또 거추장스럽게 出版社 사람이나 映画製作社 사람과 만날 필요도 없이 PC通信으로만 相互 連結을 함으로써 自己의 은둔生活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클라크는 그만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그래서 印度洋 및 大西洋에 떠온 通信衛星을 거친 PC通信을 통해 11時間~10時間의 時差를 갖는 印度大陸 東南端의 세일론섬(스리랑카)와 美國의 뉴욕 및 LA사이에 通信이 오갔던 것이다.

PC通信을 썼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클라크는 마음 내키는대로 原稿를 써서 어느 時間에건 PC通信으로 뉴욕出版社와 LA 映画社에 원고를 보낼 수 있었다. 時差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이 자고 있는 야밤중에 원고는 미국에 도달이 된다.

또 映画監督과의 갖가지 打合이나 協議도 PC通信으로 했다고 한다. 예컨대 映画감독이

「水族館에 關係서이지만……」

하고 물으면 클라크는

「그것은 마이애미에 있는 존 텔빈에게 물어 보게」

또

「宇宙船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

「그것은 시드 이이드君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시드君은 지금……」

등등으로 回答이 온다.

어쨌든 印度洋과 大西洋, 또는 印度洋과 太平洋에 떠온 通信衛星을 經由한 PC通信을 통해 製作된 續篇 「2010年の 宇宙大旅行」은 2001年의 前作만큼이나 一大 히트를 쳤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映画의 監督과 클라크는 서로 直接 만나 보기조차 못했다고 한다.

### PC通信의 時代가 오고 있다

그 PC通信은 지난 8月1日부터 드디어 우리 나라에서도 開通이 되었다. 韓國 메이터通信에 의해 우리도 PC通信을 할 수가 있다. 機種에 관계없이 PC하나만 있으면, 國內는 물론이려니와 美國이나 英國 등 世界의 어느 나라라도 마음대로 通信하는 時代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通信 媒体를 利用한 갖가지 文化·事業·教育 등등의 分野가 새로 썩이 트게 될 것이다. 그런 時代에 對備해서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 새 媒体의 利用法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